

도박산업 실태 및 대전경륜장 건설의 문제점

1. 도박산업 현황 및 문제점

1.1. 도박산업 실태

- 총매출 / 13조 9,396억원

※ 2001년보다 29.9% 늘어났고 2000년도에 비해서는 두배나 급성장

- 도박 참여인구 / 2,320만8천명(2001년대비 21.4% 성장)

- 총레저산업 대비 도박산업 비율 / 51.4%

※ 같은기준 일본의 26%에 비해 두배나 높은 것으로 나타남.

- 도박산업 참여자 총 손실액 / 4조 717억원(2000년도 보다 두배나 급증)

- 1인당 1일 베테비용 / 경륜은 55만9천원으로 카지노 다음으로 높음

〈참고자료〉 국내 도박산업의 부문별 1인당 1일 베테액 비교

	강원카지노	경 륜	경 마	경 정	복 권
2002년(만원)	224.9	55.9	47.0	27.9	0.41

1.2. 도박시설 현황 / 현재 총 51개소

구 분		위 치
경 마 장	경마장(2개소)	경기 과천, 제주
	장외발매소 (28개소)	강남, 광명, 광주, 구리, 논현, 대전, 마포, 부천, 부평, 분당, 서초, 선릉, 성동, 수원, 송인, 용산, 안산, 영등포, 의정부, 인천, 일산, 중랑, 창동, 천호, 강북, 부산, 시흥, 대구
경 륜 장	경륜장(2개소)	서울, 창원
	장외발매소 (13개소)	수원, 상봉, 일산, 동대문, 인천, 분당, 장안, 산본, 부천, 관악, 당산, 길음, 대전유성
경 정 장	경정장(1개소)	서울 미사리
	장외발매소 (3개소)	대전유성, 장안, 상봉
우 권 장		경북 청도
카 지 노		강원 정선

※ 앞으로 부산경륜장, 청도 우(牛)권장, 광주경륜장, 각종 발매소 등 2-3년 내에 70여개로 늘어날것으로 전망.

※ <경마장, 경정장, 경견장, 경륜장, 우권장 유치전에 뛰어들 지방자치단체>

- 대전시 / 1,200억원을 투입해 경륜장 건립추진
- 경기도 안산시 / 2006년 6월까지 모두 2600억원을 들여 시화호에 경정장 건립추진
- 인천시 / 경서동 서북부매립지 542만평중 32만평에 경마장 건설 추진
- 충북 제천시 / 110억원을 들여 청풍문화재단지 인근에 경견(競犬)장 건립추진
- 경북 청도군 / 우권장 건립완료 단계(우권법 올 1월에 국회통과)
- 강원도 태백시 / 광산의 대체산업으로 경견장과 오토레이스장 도입 추진
- 전남 화순군 / 폐광지역 개발을 위해 경견장 조성추진
- 전남 진도군 / 2006년까지 조성될 진돗개공원 내에 경견장 설치계획
- 전남, 광주시 / 경륜장건립 추진, 피터지는 치열한 싸움

- 장외 경륜장 / 올해 창원경륜장이 동남부권에 1개소 개장예정
- 장외 경정장 / 올해 총 5개소 개장예정지 가운데 3개소 개장, 2개소 하반기 개장예정
- 장외 경마장 / 충북 청주, 대구, 마산 등 지방주요도시에 개장을 위해 접수받고 있음.

1.3. 경륜장, 레저시설이 아닌 도박시설인 이유

- 가족과 함께 즐기는 레저 스포츠라고, 우끼고 자빠지는 소리
=> 가족공동체를 파괴하는 도박이다.

- . 경륜장 1인당 하루 평균 베팅비용이 55만9천원(2002년)
- . 경륜장 고객가운데 150만원 이하 소득자가 전체 고객의 56%
반면에, 350만 이상 고소득자는 13.5%밖에 안됨
=> 레저스포츠가 아닌, 도박중독 가능성이 아주 높은 도박시설의 특성내포.
- . 입장시 동반여부를 묻는 질문에 가족이나 친지와 가는경우는 5.9%밖에 안됨.
혼자내지 친구와 간다는 응답이 83.5%나 됨.
- . 경륜고객 가운데 월평균 입장횟수 비중을 보면, 1회에서 12회 가운데,
10회이상인 55.2% => 가족과 함께하지도 않고 경륜장에 살다시피하고 있음.

1.4. 도박중독자 치료를 위해 대전시가 도박클리닉 운영

- 한국마사회, 경륜운영본부, 경륜경정본부 모두 클리닉 운영하고 있지만, 성과없음.
- . 단순 상담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음(2002년 한국마사회 국감자료)
=> 진정 도박중독이 걱정되면, 대전경륜장 포기해야

2. 대전경륜장 대전충남 지역민 손실액

2.1. 대전광역시 순수재정 수입금

(단위 / 억원)

구 분	2006년		2007년		2008년		2009년		2010년		총 계 (06~10년)	
	2안	3안	2안	3안	2안	3안	2안	3안	2안	3안	2안	3안
레저세	408	523	513	636	649	780	825	965	1,054	1,202	3,449	4,106
지방교육세	245	314	308	382	390	468	495	579	632	721	2,070	2,464
지방체육진흥배분액	70	103	132	213	215	303	326	423	474	580	1,217	1,622
소 계	723	940	953	1,231	1,254	1,551	1,646	1,967	2,160	2,503	6,736	8,192

※ 대전시 순수재정 수입금 = 레저세 + 지방교육세 + 지방체육진흥 배분액

. 레저세 = 경주권매출액 × 10%

. 지방교육세 = 경주권매출액 × 6%

. 지방체육진흥 배분액 = 수익금(발매수득금(경주권매출액 - 환급금 - 제세) - 운영경비) × 60%

대전경륜장 운영시 2006년부터 2010년까지 대전시가 얻는 순수재정 수입금은 2안일 경우 총 6,736억, 3안일 경우 8,192억원에 이를 것으로 대전경륜장 타당성 전망 용역 보고서에서 전망하고 있다.

2.2. 대전충남 지역민 도박참여자 순 손실금

(단위 / 억원)

구 분	2006년		2007년		2008년		2009년		2010년		총 계 (06~10년)	
	2안	3안	2안	3안	2안	3안	2안	3안	2안	3안	2안	3안
손실액(70%)	881	1,183	1,098	1,420	1,376	1,718	1,733	2,098	2,194	2,583	7,286	9,002
손실액(50%)	629	845	784	1,014	983	1,227	1,238	1,499	1,567	1,845	5,201	6,430

※ 대전충남 지역민 고객 손실액 = (경륜 총 매출 - 환급금) × 70%

※ 2003년 4월 1일 현재 도박시설은 전국에 총 51개소이나 앞으로 부산 경륜장, 경마장, 청도 우권장 등을 포함 해 각종 장의 발매소가 지방도시에 개장하면 총 70여개소는 늘어날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지역간, 업종간 치열한 경쟁으로 말미암아 대전충남 지역민들의 대전경륜장 이용율은 높아질 수 밖에 없을 것이다.

대전경륜장을 이용하는 총 고객가운데 대전충남 지역민이 차지하는 비율은 현 시점 예측보다는 앞으로 업종간 지역간 경쟁이 치열해질 가능성이 큼으로 인해서 각각 50%, 70%에 이를 것으로 예측된다.

따라서, 총 고객 점유율 70%로 적용할 경우, 2006년부터 2010년까지 대전충남 지역민이 입는 총 손실액은 2안일 경우 7,286억원, 3안일 경우 9,002억원에 이를 것으로 예측된다. 고객 점유율 50%를 적용해도, 2안 5,201억원, 3안 6,430억원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

이런결과를 대전시가 얻는 순수 재정수입금과 비교해보면, 총 고객 점유율 70%를 적용하면 최소 550억원에서 810억원의 손실을 가져오는 것으로 나타난다. 다만, 총 고객 점유율 50%를 적용할 경우, 1,535억에서 1,762억원의 이득을 보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나, 건설비 감가상각비(5년간) 274억원, 역외유출, 도박중독자 치료 등 사회적비용 등을 감안하면 엄청난 손실을 볼 수 있음을 미루어 짐작할 수 있다.

이러한 결과는 대전경륜장의 수익성이 없음을 증명하는 것으로서, 업종간(경마, 경륜, 경정, 카지노, 우권 등) 경쟁과 지역간 경쟁이 본격화 될 경우 수익성이 더욱더 떨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렇게 되면, 대전경륜장은 세수확대에 기여하기보다는 오히려 대전시민과 충남도민의 호주머니만 축내는 결과만 가져올 가능성 마저 있다.

3.3. 대전경륜장 건설 감가 상각비

(단위 / 억원)

구 분	2006년	2007년	2008년	2009년	2010년	총 계 (06~10년)
경륜장 건설 감가상각	54.7	54.7	54.7	54.7	54.7	273.5

※ 대전경륜장 타당성 용역보고서 참조

3.4. 대전시 도박중독자 추산

구 분	미 국	캐나다	호 주	한 국	대전시(예측)
도박중독자		2.6%	2.1%	9.3%	93,815명
문제도박자		1.3%	1.1%	5.5%	51,598명
병적도박자	1~1%	1.3%	1.0%	3.8%	43,217명

※ 도박중독자(93,815명) = 2001년 대전광역시 20세이상 인구(1,008,276명) × 9.3%

※ 국민체육진흥공단 용역보고서(2001년)에 따르면, 우리나라 성인인구의 9.3%에 해당되는 약 300만명이 도박중독자로 추산하고 있음.

※ 고객유병률(병적도박자 / 고객수×100) 즉, 이용고객 가운데 병적도박자로 진행되는 비율은 경륜이 33.3%로 가장 높으로 것으로 용역보고서에서 지적하고 있다. .

현재 도박산업이 급팽창하고 있는 가운데 2001년 기준으로 2006년 대전광역시 도박중독자 인구를 추산하는 것은 최소한의 도박중독자 인구추계라 판단되며, 최소한 10만명은 족히 넘어설 것이라는 추산이 가능하다. 특히, 도박산업이 성장하면 할수록 더 많은 국민들과 대전시민들이 더 많은 돈을 잃게 되고, 또 도박중독자들을 양산하게 될 것이다.

기존 3곳에 이르는 장외발매소와 더불어 대전경륜장 개장은 결국 기존 도박수요를 충족시키는 것에 그치지 않고 새로운 도박수요를 창출할 수 밖에 없어 도박중독자를 양산하게 되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음을 대전시는 유념해야 한다.

3.5. 도박중독에 따른 사회적 비용

(단위 / 억원)

구 분	2006년	2007년	2008년	2009년	2010년	총 계 (06~10년)
도박중독에 따른 사회적 비용	529	537	545	553	561	2,725

※ 도박중독에 따른 사회적 비용 = 대전시 성인인구 × 도박중독율(9.3%) × 1인당 비용(523,560)

※ 도박인구 1인당 사회적 비용 추산 = 10조(2001년 사회적 비용) ÷ 1,910만명(2001년 도박인구)

※ 대전시 인구증가율 1.5% 적용

국민체육진흥공단이 용역의뢰한 『병적도박 실태조사 및 치료 프로그램(2002)』에 따르면, 2001년 기준으로 도박으로 인한 생산성 저하와 범죄 등 국내의 사회적 손실을 연간 10조로 추산하고 있어, 2001년 합법적인 도박산업 매출액 9조원을 웃돌고 있다.

2006년부터 2010년까지 도박중독에 따른 사회적 비용은 총 2,725억원으로 조사되었다.

4. 대전경륜장 득실 비교분석

4.1. 대전.충남 지역사회 부담금(지역민 고객점유율70%일 경우)

(단위 / 억원)

구 분	2006년		2007년		2008년		2009년		2010년		총 손 실 액 (06~10년)	
	2안	3안	2안	3안	2안	3안	2안	3안	2안	3안	2안	3안
지역주민 베티손실 점유 70%	881	1,183	1,098	1,420	1,376	1,718	1,733	2,098	2,194	2,583	7,282	9,002
경륜장 건설 감가상각	54.7	54.7	54.7	54.7	54.7	54.7	54.7	54.7	54.7	54.7	273.5	273.5
도박중독에 따른 사회적 비용	529		537		545		553		561		2,725	
소 계	1,464.7	1,766.7	1,689.7	2,011.7	1,975.7	2,317.7	2,340.7	2,705.7	2,809.7	3,198.7	10,280.5	12,000.5
지방세수 수입금	723	940	953	1,231	1,254	1,551	1,646	1,967	2,160	2,503	6,736	8,192
소 계											-3,544.5	-3,808.5

대전충남 지역민이 차지하는 고객 점유율이 70%였을 때, 대전경륜장으로 인해서 유발되는 대전충남 지역사회 총 부담금은 2006년부터 2010년까지 2안은 1조280억원이었으며, 3안은 1조 2천 억원으로 나타났다.

이를 대전경륜장 지방세수 수입금과 비교해보면, 2안일 경우, 대전충남 지역주민들은 3,545억원의 손해를 보는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3안일 경우 3,809억원을 손해보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4.2. 대전.충남 지역사회 부담금(지역민 고객점유율 50%일 경우)

(단위 / 억원)

구 분	2006년		2007년		2008년		2009년		2010년		총 손 실 액 (06~10년)	
	2안	3안	2안	3안	2안	3안	2안	3안	2안	3안	2안	3안
지역주민 베티손실 점유 50%	629	845	784	1,014	983	1,227	1,238	1,499	1,567	1,845	5,201	6,430
경륜장 건설 감가상각	54.7	54.7	54.7	54.7	54.7	54.7	54.7	54.7	54.7	54.7	273.5	273.5
도박중독에 따른 사회적 비용	529		537		545		553		561		2,725	
소 계	1,212.7	1,428.7	1,375.7	1,605.7	1,582.7	1,826.7	1,845.7	2,106.7	2,182.7	2,460.7	8,199.5	9,428.5
지방세수 수입금	723	940	953	1,231	1,254	1,551	1,646	1,967	2,160	2,503	6,736	8,192
소 계											-1,463.5	-1,236.5

대전충남 지역민이 차지하는 고객 점유율이 50%였을 때, 대전경륜장으로 인해서 유발되는 대전충남 지역사회 총 부담금은 2006년부터 2010년까지 2안은 8,199.5억원이었으며, 3안은 9,428.5억원으로 나타났다.

이를 대전경륜장 지방세수 수입금과 비교해보면, 2안일 경우, 대전충남 지역주민들은 1,464억원의 손해를 보는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3안일 경우 1,237억원을 손해보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4.3. 지역자금 역외유출

(단위 / 억원)

구 분	2006년		2007년		2008년		2009년		2010년		총 계 (06~10년)	
	2안	3안	2안	3안	2안	3안	2안	3안	2안	3안	2안	3안
국민체육진흥기금	12	17	22	34	35	49	52	68	76	93	197	261
청소년육성기금	12	17	22	34	35	49	52	68	76	93	197	261
산업발전기금	20	30	38	60	61	85	92	118	132	162	343	455
문화관광부장관사업	3	4	5	9	9	12	13	17	19	19	49	61
농어촌특별세	84	113	105	135	131	164	165	200	209	246	694	858
소 계	131	181	192	272	271	359	374	471	512	613	1,480	1,896

지역자금 역외유출 정도를 분석한 결과, 2006년부터 2010년까지 5년간 2안일 경우 1,480억원이 역외로 유출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3안일 경우 이보다 많은 1,896억원이 역외로 유출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4.4. 대전경륜장 선택 / 사업성이 있거나 도박도시가 되거나

대전시가 주장하듯이 대전경륜장 개장이후 향후 5년간 매년 평균 1,500억원의 지방세수를 거둬들일 수 있을까? 그런 지방세수 규모는 대전시의 희망이지, 절대 불가능하다. 현재 경륜장은 서울과 창원 2곳에서 영업을 하고 있는데, 서울경륜장의 경우, 실외시설이기 때문에 겨울에는 영업을 못하고 3개월정도 휴식기를 갖는데, 이 기간중에 창원경륜장이 거둬들이는 매출액은 1년 매출액의 50%넘는다고 한다. 다시말해서, 유일한 실내경륜 시설을 가지고 있는 창원경륜장 조차도, 수도권에 사업의존도가 높다는 것을 드러낸 것이다.

그런데, 서울경륜장이 2005년 완공되고, 부산경륜장과 경마장이 영업에 들어가고, 광주경륜장과 경북청도 우권장까지 개장을 한다면, 기존 창원경륜장과 대전경륜장을 포함해 총 7개의 대형도박장을 각 권역별로 보유하게 된다. 뿐만 아니라, 현재 50여개에 이르고 있는 경륜,경마,경정 등의 장외발매소가 수도권에서 지방으로 확대 된다면, 도박시설간의 지역간 경쟁과 업종간 경쟁이 치열해지기 때문에, 대전경륜장의 수익성은 시의 예측보다 훨씬 적어질 가능성이 크다는 점이다. 이분야 관련 전문가들도, 권역별로 경륜장이 입지했을 때 경륜, 경정, 경마 등 선택이 폭이 커지는 수도권 주민들의 대전경륜장으로의 유입은 더더욱 어려워 진다는 점에서 대전경륜장이 예상처럼 매출이 오르지 못할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하고 있다.

설혹, 2010년에 200만명에 가까운 고객이 입장한다 치더라도, 그렇게되면, 왜래 지역민들의 출입비율은 과도하게 높아져 10만명이 넘는 도박중독자 양산이나 지역자금 역외유출 등 또다른 주민손실이 커지는 부작용이 발생할 수 밖에 없기 때문에 더 큰 사회적 문제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대전경륜장 사업 타당성에 대한 재검토가 이루어져야 한다.

5. 결론 및 대안제시

“대전시 재정난 대책, 경륜장보다는 지하철 건설·운영의 국가공단화가 시급”

대전시가 현재 추진하고 있는 대전경륜장 건설은 새로운 도박인구의 신규수요를 창출한다는 점에서 전면 백지화 해야 한다.

여당인 민주당이 도박산업의 무분별한 확산을 방지하기 위한 기획단 구성을 추진중에 있는바, 대전시도, 지역민의 삶의 질의 피해를 가져오는 경륜장 유치보다는 도박산업 전반에 대한 실태조사와 중장기 계획 수립 등 도박관련 법의 개정을 중앙정부기관에 요구하는 등 좀 더 적극적인 인본행정을 펼쳐야 할 것이다.

아울러, 대전시 재정문제의 핵심은 지하철건설에 기인한다는 점에서, 저비용 고효율로의 교통정책의 전환과 더불어 지역민의 합의를 모아, 지하철 국가공사화를 관철시킬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특히, 대전시 지하철은 막대한 건설비 소요는 물론, 개통이후에도 매년 200-300억원의 막대한 순수운영 적자를 가져와 대전시 재정운용에 걸림돌이 될 가능성이 크다는 점에서, 지하철 국가공사화는 불가피한 선택이다. 따라서, 지하철 국가공사화를 위한 정치권, 행정기관, 언론, 시민단체 등이 참여하는 범 시민대책위원회를 구성할 것을 제안한다.